

교환학생 귀국보고서

파견학기	2026 년 1 학기	파견국가	독일
파견대학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학 번	2023-14951	이 름	오윤서
소 속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전기정보공학전공		

본인은 서울대학교 국제처 주관 해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국제처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학생 안내, 프로그램 홍보 등에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 출 일	2026 년 8 월 11 일
작 성 자	오윤서 (오윤서)

I. 교환 파견 동기

인생에서 한 번도 해외에서 오랜 기간 생활해 본 적이 없었는데 대학에서 지원해주는 교환학생의 신분으로 해외에서 생활해보는 경험이 저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리라 생각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저는 독일을 대표하는 명문대학 중 하나인 뮌헨공과대학교(Technische Universität München, TUM)에 파견되었습니다. 뮌헨공과대학교는 공학과 자연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한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학생들이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와 프로젝트를 통해 전공 지식을 폭넓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국제적인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어, 전공 수업 외에도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교류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도 비교적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교환학생이 학업에 적응하기에도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뮌헨은 독일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치안이 안정적이고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있어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입니다. 물론 늦은 시간이나 사람이 드문 장소에서는 기본적인 주의가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여학생이 혼자 생활하거나 시내를 이동하기에도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또한 시내 곳곳에 공원과 문화시설이 많고, 주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도 잘 갖추어져 있어 학업과 여행을 함께 즐기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뮌헨의 매력을 충분히 경험하고 싶다면 여름학기 파견을 추천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양한 지역 축제와 야외 행사가 열리고, 영국정원에서는 산책이나 피크닉, 일광욕, 수영 등 여러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해가 늦게 지기 때문에 수업이 끝난 뒤에도 친구들과 야외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으며, 주말에는 근교의 호수나 알프스 지역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야외 활동과 활기찬 도시 분위기 덕분에 여름학기에는 뮌헨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더욱 다채롭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

한국 국적 학생은 학업 목적으로 독일에 무비자 입국한 뒤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한 학기와 같이 체류 기간이 90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관할 외국인청에 학업 목적 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뮌헨은 행정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국 후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 전에는 먼저 뮌헨공과대학교의 입학허가서 또는 교환학생 수학허가서를 받은 뒤, 여권과 재정증명서, 건강보험 관련 서류, 증명사진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미리 발급받아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독일 외무부의 영사서비스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한 후, 사전 검토가 끝나면 독일대사관 방문 예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일에는 온라인으로 제출했던 서류의 원본을 준비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대사관의 업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국일보다 충분히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 국적 학생은 학생비자를 미리 발급받지 않고 독일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현지에서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독일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등록청인 **Bürgerbüro**에서 주소등록인 **Anmeldung**을 해야 합니다. 주소등록은 원칙적으로 입주 후 14 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여권과 집주인이 작성한 입주확인서인 **Wohnungsgeberbestätigung** 등이 필요합니다. 거주지가 뮌헨 시내라면 주소등록을 마친 후 뮌헨 외국인청인 **KVR**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체류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는 여권, TUM 재학증명서,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재정증명, 생체인식용 증명사진과 신청서 등이 요구됩니다. 재정증명은 슈페어konto와 같은 차단계좌, 장학금 증명서, 부모님의 재정지원 확인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류허가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뮌헨 외국인청은 신청자가 많아 접수부터 카드 발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무비자로 입국한 학생은 90 일의 무비자 체류 기간이 지난 후 체류허가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경우 독일 밖으로 여행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소 계약과 주소등록을 마치는 즉시 체류허가를 신청하고, 온라인 접수 확인서와 제출 서류의 사본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입학허가서 수령 → 필요 서류 준비 → 독일 입국 → 주소등록 → 체류허가 신청**의 순서로 준비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IV. 학업

1. 수강과목

- German as a Foreign Language A1.2 plus A2.1: ‘초급 독일어 1’과 듀오링고로 독일어를 조금 안 상태로 신청했는데 주 2회 수업인 만큼 학업적인 부담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강생들과 독일어를 함께 공부하고 교류하는 시간이 재밌었고 특히 독일어 수업을 영어가 아닌

독일어만 쓰고 수업하시는데 이 방법이 꽤 독일어 듣기 실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Introduction to Deep Learning (I2DL):** 딥러닝의 기초에 대해 알려주시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다 올려주셔서 복습하기에 좋았고 매주 과제가 나오는데 과제를 모두 완성하면 학기말에 보너스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논리회로 설계에서의 최적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실제 툴에서 쓰이는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해 학습합니다. 모두 이론위주의 강의입니다.
- **Neuromorphic Electronic Devices:** 실제 칩에 들어가서 저항형 메모리 소자를 제작하고 저온 측정, 히스테리시스 곡선 측정, 펄스 측정등을 시행하는 실습형 수업입니다.

V. 생활

1. 스포츠

Olympiapark에서 테니스 코트를 예약하여 테니스를 칠 수 있으니 테니스 관심있으신 분은 채를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근처에 수영장도 있어 저렴한 가격에 한학기동안 자유수영이 가능하니 수영복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zhs 라는 스포츠 단체에서 운동강의를 신청해서 들을 수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학기 시작전에 미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스포츠 강의들이 인기가 많아서 신청 기간을 잘 체크해보세요. 저는 **deep work**, **beach tennis** 강의를 수강했었는데 특히 **beach tennis**는 모래사장에서 피클볼이랑 비슷한 형태로 게임을 하는거라 새로운 스포츠 종목을 접할 수 있어 재밌었습니다. 영어 또는 독일어로 강습해주시는데 스포츠라 대부분 몸으로 따라하는 것이 가능하고 강사님이 영어로 다시 설명해주시기도 하셔서 언어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2. 여행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좋지만 뮌헨 및 근교 여행도 매우 추천 드립니다. 학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나 시간적인 부담으로 인해 기차 여행을 좋아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도이칠란드 티켓을 쓰면 교통비도 무료라 아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특히 뮌헨은 근교에 호수들이 많은데 Eibsee, Tegernsee, Konigsee 가 유명하고 여름철에 수영복을 챙겨가면 맑고 깨끗한 물에서 수영할 수 있습니다. 잘츠부르크도 근교여행으로 가기 좋으니 참고하세요. 저는 가봤던 여행지 중에 Eibsee 가 가장 좋았을 만큼 자연 좋아하시면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교환학생들과 가장 많이 방문했던 곳은 영국정원이었습니다. 평소에 피크닉하기도 너무 좋고 무더위에 사람들이 영국정원에서 서핑이나 수영을 즐겨합니다. 뮌헨 시내, 뮌헨 박물관, 미술관들도 너무 좋고 특히 일요일에는 1 유로에 관람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세요!

3. 학교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매주 열리는 언어 교류 프로그램인 ‘Language Café’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이고 영어 실력 늘리고 싶은 분들에게 최적일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esn 주관 하이킹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하이킹 난도가 있지만 그만큼 경치가 좋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또한 오가는 기차 안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재밌었습니다.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한국에서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은 편이었고 사실상 고등학생과 다를 법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독일이라는 먼 나라에 혼자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고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정말 우연히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저에게는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내에서는 나와 가치관이 비슷하고 비슷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 속에서 생활했다면 해외에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과 교류하다 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또한 혼자 유럽 여행을 다니고 혼자 많은 일들에 부딪히는 시간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라는 사람과 소통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외국인들과 대화하고 연락하며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이 엄청나게 큰 도전이었고 교환을 통해 뭔가 많은 것들이 바뀌기를 희망했습니다. 교환학생을 마치는 이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니 외적으로 엄청난 변화는 아니지만 제 내면이 더 단단해지고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추억으로 마음이 풍성해지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멈춰서서 고민해보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볼 시간 없이 달려온 저에게 교환학생 경험은 책 속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내 고정관념과 내가 안주하던 공간을 타파하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을 마치며 저의 교환기간을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교환기간에 만난 소중한 인연들에게 고맙습니다.